

독서의 공간 은유

—이상(李箱) 시 「화로」를 중심으로

김 옥 순

1. 은유란

은유는 언어철학과 수사학의 핵심적 문제로서 그리스 시대 이후 가장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언어의 문제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은유에 능한 것이 중요한데, 이 능력만은 타인으로부터 배울 수 없는 것이고 천재의 징표다. 왜냐하면 은유를 잘한다는 것은 상이한 것 중에 상사성(相似性)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¹⁾ 그는 『시학』 제21장에서 은유를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은유는 한 사물에 다른 것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때 그것은 유(類)에서 종(種)으로, 혹은 종에서 유로, 혹은 종에서 종으로, 혹은 유추 *analogy*의 바탕에서 전이하는 존재다”라고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은유학의 기초를 확립한 이 네 가지 정의는 현대 은유 이론에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바탕이 된다. 투르바인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첫번째 은유와 두번째 은유는 제유 *synecdoche*이고 세번째는 환유 *metonymy*로 보았다.²⁾ 그리고 폰타니에에게는 이들이

1) Aristoteles, *Poetics*, 제22장, 손명현 옮김, 박영사, 1986.

다 비유 *trope*이고 그가 은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도식에서 네번째다.³⁾ 또한 에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첫번째와 두번째 은유는 제유이고 세번째 은유는 $A-B=C-B$ (“봉우리의 날카로움은 이의 날카로움과 같다”)와 같은 닮음(B)의 공통점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의 은유라고 본다. 네번째 유추의 은유는 $A-B=C-D$ (“인생에 대한 노년의 관계는 하루에 대한 석양의 관계와 같다”)인데, 이러한 명제적 공식에서 비유의 분명한 남유 *catacrisis* (전통적 수사법에서는 주로 적절하지 않은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일어난 말의 혼용을 뜻함)까지도 나타낸다고 말한다. 즉 $A-B=x-D$ 의 경우(테이블의 다리)까지도 나타내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에서다.⁴⁾

위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네 가지 정의를 정리하면 첫째, 은유는 명사에서 발생하는 어떤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단어에 초점을 둔 비유의 이론이나 문체 *figure*를 담고 있다. 두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전이 *epiphora*, *movement*다. 전이는 일종의 치환 *displacement*으로 기술되는데 ‘~로부터 ~로의’ 이동을 통해 빌려온 은유를 창조한다. 여기서 1) 은유는 빌려오는 것이다. 2) 빌려온 의미는 적절한 의미에 대립된다. 3) 빈 의미를 채우기 위해 은유에 의지한다. 4) 빌려온 단어는 적절한 단어가 부재하는 곳에서 발생한다는 정의를 예상케 한다. 세번째로 은유는 명칭의 치환 *transposition*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낯선 *allotrios*⁵⁾이라 부르는 것,

2) Colin Murray Turbayne(1962), *The Myth of Metaphor*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pp. 11~12.

3) Pierre Fontanier(1830), Paul Ricoeur(1978), *The Rule of Metaphor*, p. 56, 재인용.

4) Umberto Eco(1984), *Semiotics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서우석·전지호 옮김, 청하), pp. 148~54.

5)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제22장. 조사 *lexis*에서 ‘낯선 말’은 ‘신기한 말’을 가리킨다. 신기한 말, 예컨대 “외래어·은유·수식어 및 기타 위에서 말한 것들은 조사 *lexis*를 평범치 않고, 비속지 않게 할 것이고, 일상어는 그것을 명석하게 할 것이다”(『시학』, 손명현 옮김, 박영사, 1986, p. 141).

그것은 어떤 다른 것에 속한 명칭, 낯선 명칭이다. 이 용어는 일상적인 것에 대립된다. 따라서 은유는 일탈 *deviation*의 용어로 정의된다. 단어 '낯선'은 빌려온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함축한다. 네번째로 '낯선' 용법에 대한 언급에서 부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치환 *substitution*의 개념으로 표상된다. 항상 부재하여 비은유적 단어를 대치하여 연결하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빌려온 은유적 단어로 의미했다면 일탈은 항상 치환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같이 치환의 개념은 확고하게 '빌려오기'에 깊이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네번째 유추에 바탕을 둔 은유, 즉 비례적 은유($A-B=x-D$)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의 기능 중의 하나가 의미론적 결함을 채우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기능은 이후의 전통에서 장식의 기능으로 추가된다. 이 낯선 것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일상의 용법에서부터의 일탈의 개념, 2) 원래 영역으로부터의 빌려오기의 개념, 3) 부재하는 것을 일상에 유용한 단어로 치환하는 개념이다. 이 정의에서 문제는 치환의 개념이다. 은유적 용어가 정말로 치환된 용어라면, 그것은 아무런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부재하는 용어는 만약 존재한다면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 아무런 정보도 전달되지 않는다면, 은유는 단지 장식이자 부차적 가치를 가질 뿐이다. 이 결과들을 은유의 정의라고 보기를 거절하는 것은 치환의 개념을 거절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것은 전이나 명칭의 이동을 거절하는 것과 연결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네번째 은유인 유추에서 다시 시작하면, 네번째 용어는 두번째가 첫번째와 관련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세번째와 관련된다는 것인데, 관계 사이의 동일성과 유사성의 개념은 '닮음 *resemblance*'의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이 *epiphora*는 논리적인 축 사이에서 작용한다. 은유는 이미 유 *genus*와 종 *species*의 용어에서 구성된 질서로, 그리고 그 관계 규칙 — 종속 관계, 대등 관

계, 비례 균형, 관계의 동등성 —의 게임에서 이미 주어진 질서에서 발생한다. 종의 명칭에 유의 명칭을 주므로, 두번째 용어의 명칭에 비례적인 관계의 네번째 용어를 주므로, 그리고 반대 경우에 우리는 동시에 언어의 논리적 구조를 인식하고 위반한다.

여기서 다시 리콕르가 말하는 은유의 새로운 가설을 생각할 수 있다. 첫번째, 은유는 범주 실수 *category mistake*⁶⁾다. 만약 은유가 항상 실수를 포함한다면, 만약 그것이 일종의 계산된 실수에 의해서 한 가지를 다른 것으로 택하는 것이라면 은유는 본질적으로 종잡을 수 없는 현상이다. 여기서 범주 위반은 일탈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논리적 일탈이다. 두번째로, 은유는 분류 도식의 혼란이다. 은유가 존재하기 전 *pre-existing*의 논리 질서와 관련된 일탈을 말한다. 이 위반은 의미를 창조한다. 그러면 범주 실수는 단지 발견에 대한 논리의 보충일 뿐인가. 막스 블랙의 모델 은유⁷⁾에 제한을 둔다면 은유가 현실을 '재기술 *redescribe*' 하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한다고 말해야만 한다. 이 같이 범주적 실수는 기술과 재기술 사이를 해체하는 매개적인 국면이다. 세번째로, 만약 은유가 발견적인 사유에 속한다면, 어떤 논리적 질서, 어떤 개념적 계승, 어떤 분류 도식을 혼란시키는 과정은 분류하는 것과 같다고 상상할 수 없을까. 최초의 은유적 충동의 개념은 적절한 것과 비유적인 것, 일반적인 것과 낯선 것, 질서와 위반 사이의 대립을 파괴한다. 그것은 의미론적 분야 자체가 종과 유를 제기하는 은유적 구성에서부터 질서 자체가 진행된다는 개념을 제시한다.⁸⁾

6) 길버트 릴 Gilbert Ryle의 범주 실수의 개념임.

7) 막스 블랙 Max Black의 비교 이론: 어떤 단어들이 은유적으로 사용되는 반면에 나머지는 비은유적으로 사용된 한 문장이나 또 다른 표현 전체가 은유다. 이 정의는 은유적 단어를 그 문장의 나머지에서 분리시키게 한다. 초점 *focus*은 이 은유적으로 사용된 단어를 가리키고, 틀 *frame*은 문장의 나머지를 지칭한다. 이 비교 이론은 단어들이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환영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한 단어에 초점을 맞추는 현상을 표현한다.

8) Paul Ricoeur(1978), *The Rule of Metaphor* (Lond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pp. 16~23.

I. 은유의 범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라는 말을 하나의 총칭적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제유·환유·직유 등이 모두 다 은유의 범위에 들어간다. 먼저 폰타니에는 환유를 상호 관계 의식이나 상응 *correspondence* 으로, 제유는 연결 *connection* 관계로, 은유는 유사 *resemblance* 관계로 설명한다. 폰타니에는 은유를 로만 야콥슨 Roman Jakobson이 환유의 기능으로 축소시킨 인접 *contiguity* 과는 아주 다른 어떤 것으로 이해한다. 환유는 그 안에서 '절대적으로 분리된 총체'를 구성하면서 각각의 두 대상을 함께 가져오는 관계라고 본다. 이것은 환유가 상응의 일반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관계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이유다.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 목적에 대한 도구, 내용물과 그릇, 그 위치와 사물의 관계, 기호 작용과 기호의 관계, 도덕적인 것에 대한 물리적인 관계, 사물에 대한 모델의 관계 등이다.

폰타니에가 말하는 제유는 연결 관계로 설명된다. 두 대상은 종합적 효과를 형성하고 물리적이거나 형이상학적 총체를, 다른 편의 존재나 개념에 포함된 한 존재의 존재나 개념을 형성한다. 구체적으로 전체와 부분의 관계, 사물과 재료의 관계, 많은 것과 하나의 관계, 종에 대한 유의 관계, 추상에 대한 구체의 관계, 개별에 대한 유의 관계 등이다.

환유와 제유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환유가 배제 *exclusion* 라면 제유는 함축 *inclusion* 이다. 환유가 절대적으로 분리된 총체라면 제유는 안에 포함된 총체다. 환유와 제유, 상응과 연결은 배제와 함축으로 구분하는 두 관계를 가리킨다. 이 두 관계는 대상을 연결하는 개념에 앞서서 연결된다. 두 경우에 배제나 포괄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대상이다. 그러므로 명칭을 명명하는 관련성의 변경은 객관적인 관계 의식을 따른다.

이 두 비유와 은유가 다소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은 유사역할에서

다. 유사 관계는 명칭이나 명사에 의하여 사물의 명칭을 바꾸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은유는 개념들 사이의 관계성만을 언급한다. 명사의 은유적 사용은 무엇인가? 화난 사람을 호랑이로 만들고, 위대한 작가를 백조로 만드는 것은 새로운 명칭으로 한 사물을 지칭하는 것과 다르다. 은유는 특성화하고 특질화하는 의미에서 '명명하기'가 아닌가? 앞의 제유와 환유는 두 개념이 아니라 두 단어들과 관련된 한 문장 안에서만 기능한다. 즉 비은유적으로 택한 한 용어는 후원자로서 행위하고, 은유적인 다른 쪽은 특성화의 기능을 가진다는 폰타니에의 이 은유 개념은 리처즈가 만든 취의 *tenor*와 매개물 *vehicle* 사이의 구별⁹⁾에 가까워진다.

은유의 의사 *pseudo* 술부적 성격은 은유의 정의를 명사나 명칭과 아무런 직접적인 지시성을 만들지 않을 뿐 아니라 대상과 관련시키지도 않는다. 은유는 더 충격적이거나 더 잘 알려진 또 다른 기호 속에서 한 개념을 표현하면서 이루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네번째 은유인 유추는 개념들 사이에서 작용한다. 그리고 개념 자체는 '정신으로 보는 대상'의 시점에서가 아니라 '보고 있는 정신'의 시점에서 이해된다. 왜냐하면 이런 의미에서만 개념이 더 잘 알려지거나 더 충격적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가 유추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관계를 발견할 때도 명칭은 '한 종 *species* 중의 한 일원에서부터 또 다른 일원'으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한 종에서부터 또 다른 종'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통의 의견이 그런 닮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연결과 상응은 일차적으로 대상들 사이의 관계인 반면에

9) 리처즈 I. A. Richards의 상호 작용 *interaction*의 이론: 문장의 의미는 단어 의미의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단어의 의미는 문장의 한 부분을 고립시키고, 문장을 부속으로써 진행된다. 이런 연술의 상호 침투 이론에서 기저 개념을 취의라고 부르고, 매개물을 처음 개념이 이해한 그 개념하에서 개념의 명칭으로 부르도록 제시한다. 은유는 매개물만이 아니라 취의의 두 관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유사는 일반적으로 믿음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관계이고, 개념들 사이의 관계다. 명명하기(환유·제유)와 구별해서, 특성화(은유)는 의견의 비교를 통해서 형성되고 그것은 판단의 영역 안에서 형성된다.¹⁰⁾

그리고 직유가 은유에 종속되는 점은 직유와 비례하는 은유 사이의 특수한 친족 관계 때문이다. 성공적인 직유는 어떤 의미에서 은유적인데, 그것들은 항상 둘 사이의 관계를 비례적인 은유처럼 포함하기 때문이다. 비례적 은유가 두번째 용어의 명칭에 네번째 용어의 명칭을 주는데 사물 자체에서가 아니라 두 쌍의 사물들의 관계 사이를 다루는 복합적인 비례로부터의 생략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방패가 아레스의 술잔이고 활이 현이 없는 리라. 이런 식으로 유추에 의한 은유는 직유 *eikôn* 와 동일시되려는 경향이 있다. '같이, 처럼, 듯이, 등' 과 같이 모든 은유는 비교나 직유를 함축한다. 시인이 노인을 '시든 줄기' 라고 부를 때 그는 새로운 개념(그는 지식을 만들었다), 새로운 사실을 '상실된 꽃' 의 언급을 통해서 전달한다.¹¹⁾

2. 집 ∩ 사람의 비유 체계

1) 房거죽에極寒이와닿았다. 2) 極寒이房속을넘본다. 3) 안은견딘다. 4) 나는讀書의뜻과함께힘이든다. 5) 火爐를꽂쥐고집의集中을잡아당기면유리窓이옴푹해지면서極寒이혹처럼房을누른다. 6) 참다못하여 火爐는식고차집기때문에나는適當스러운房안에서떨떨맨다. 7) 어느바다에潮水가미나보다. 8) 잘다져진房바닥에서어머니가생기고어머니는내이폰데에서火爐를메어가지고부엌으로나가신다. 9) 나는겨우暴動을

10) Pierre Fontanier(1830), P. Ricoeur(1978), pp. 56~58, 재인용.

11) Paul Ricoeur(1978), pp. 24~28.

記憶하는데 내게서는 억지로 가지가 돌는다. 10) 두팔을 벌리고 유리窓을
 가로막으면 팔래방망이가 내등의 더러운衣裳을 두들긴다. 11) 極寒을 걸
 커미는 어머니-奇跡이다. 12) 기침藥처럼 따끈따끈한 火爐를 담아가지고
 内體溫위에 올라서면 讀書는 겁이나서 곧 두박질을 친다.

—「火爐」, 『가톨릭靑年』, 1936. 2(번호는 필자가 매긴 것임)

이상(李想)의 시 「화로」에서는 겨울의 혹한에 대항하는 사람과 건
 축물들의 은유적 대응 관계가 펼쳐진다. 사람과 집의 역동적인 공동
 체성과 더불어 집과 세계의 역동적인 적대성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연상되는 것은 겨울 추위에 대항하는 집의 현실적인 보호 역할이다.
 여기서는 공통의 애정뿐만 아니라, 그에 더하여 공통의 힘이, 두 용
 기의, 두 저항의 응집이 있다. 우리들의 집을 위안의 공간, 내밀함의
 공간, 내밀함을 응축하고 지켜줄 공간으로 여기자마자, 곧 인간적인
 것으로 집의 전이는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일체의 합리성을 넘어
 서는 꿈의 영역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¹²⁾

이 시에서는 '동어 반복'의 기술을 통한 생략적 은유 형태와 주술
 관계의 불일치 현상을 통해 은유가 자리잡고 있다. 동어 반복은 첫째
 로, 같은 뜻을 지시하는 단어가 한 문장에 동시에 공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화로를 꼭 쥐고 집의 집중을 잡아당기면"에서는 유사한 행
 위의 반복(꼭 쥐고 잡아당기는 행위)을 통해서 구체물인 '화로'와 추
 상인 '집의 집중'의 의미가 유사 관계임을 암시한다. "잘 다져진 방바
 닥에서 어머니가 생기고"에서는 방바닥과 어머니가 인접 관계인 것처
 럼 앞뒤 문장에서 반복 공존하여 개념상 유사 관계의 암시를 띤다.
 둘째로, 다른 문장이 계속 연이어져서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의미
 상으로 동어 반복임을 암시하는 경우 "방안은 견딘다. 나는 독서의 뜻
 과 함께 힘이 든다"의 두 문장은 견디고 힘드는 공동의 자세가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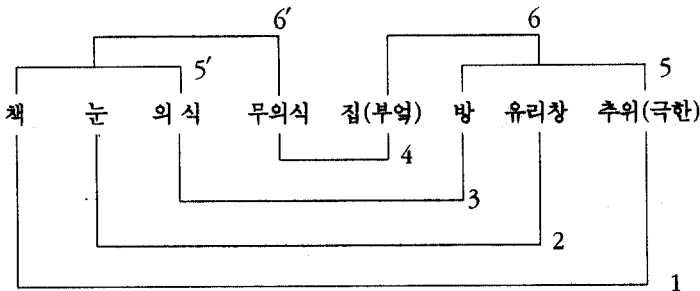
12) Gaston Bachelard, 『공간의 시학』, 박광수 옮김(민음사, 1990), pp. 167~69.

난다. “어느 바다에 조수가 미나 보다. 잘 다져진 방바닥에서 어머니가 생기고”도 역시 바다와 어머니의 대응 관계가 암시된다. 또한 주술 관계의 불일치 현상으로도 나타난다. “방안은 전딘다” “유리창이 움푹해지면서” “독서는 겁이 나서 곤두박질을 친다”에서는 방과 유리창과 독서의 부정물이 의인화되어 나타난다. 양태사는 한 번 나타나는데, “유리窓이 움푹해지면서極寒이 혹처럼房을 누른다”의 문장에서다. 여기서 직유적 표현은 극한이 혹과 같다는 게 아니라 극한(추위)이 혹처럼 방을 누른다는, 즉 추위가 방을 위협한다는 설명에 있다. 즉 여기서의 직유는 은유적 성향보다는 양적인 비교에 가깝다.

이런 유사와 인접 관계를 추정하여 서로 다른 개념들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 먼저 건축물과 추위와의 대립 관계를 표현하는 문장들이 나타나는데, “거죽에 극한이 와 닿았다” “극한이 방 속을 넘본다”이다. 이어서 연결되는 “방안은 전딘다”는 건축의 범주와 사람의 범주가 동시에 겹쳐 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의식 범주가 나타난다. “나는 독서의 뜻과 함께 힘이 든다” “화로를 짝 쥐고 집의 집중을 잡아당기면 유리창이 움푹해지면서 극한이 혹처럼 방을 누른다.” 은유적 대응 관계를 공간적 배치를 통해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 독서 행위

방한(防寒) 구조 B



이와 같이 독서와 의식과의 관계는 방과 극한과의 관계로 대응됨을 알 수 있고 그 사이에 각각 눈과 유리창이 위치한다. 다시 말하면 $\{(독서 \supset \text{눈(육체)} \supset \text{의식}) \cap (\text{극한} \supset \text{유리창(집)} \supset \text{방})\}$ 의 관계가 나타난다. 그리고 의식의 집중이 동어 반복에 의해 화로임을 알 수 있고 화로는 곧 집의 중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극한이 방을 누르는 것은 독서가 의식을 누르는 것으로 은유적 대응을 이룬다.

위의 비유적 대응 관계를 살펴보면 책이 지각 기관을 통해 의식에 들어오는 과정은 A. 독서 행위로서 B. 집이 추위에 대항하는 건축물의 방한 구조와 유추 관계를 맺고 있다. 즉 공간적 대응 관계를 떠먼저 밖에서 안으로, 또는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공간의 유추 관계를 보여준다. 독서 행위의 '책→눈→의식 활동'의 공간적 이동은 '추위→유리창→방 내부'의 공간적 이동 관계와 대응된다. 책 속에 들어 있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눈을 통해서 내 의식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겨울 추위도 방안으로 몰려오려고 한다는 관계다. 1. 책 \cap 추위 (밖의 영향력) 2. 눈 \cap 유리창(집과 바깥의 경계선) 3. '의식 \cap 방' (안의 공간) 4. 무의식 \cap 집(부엌)(숨은 공간)이다. 밖의 공간→밖과 안의 경계선→안의 공간→숨은 공간이 나타난다. 여기서 숨은 공간으로 나타나는 곳은 이상이 살아 있을 당시, 1930년대 한옥집의 낮게 들어간 부엌의 은밀한 공간임을 주목해야 한다. 1930년대의 부엌은 볼때는 아궁이의 역할 때문에 땅이 낮게 움푹 들어간 내밀한 여자만의 공간이었다.

이런 비유적 대응 구조를 집 \cap 사람의 비유에서부터 살펴보겠다. 추위에 대항하는 집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관계는 '극한(겨울 추위)/집의 대립 구조'로 나타난다. 이런 겨울 추위에 대한 집과 사람의 공동 대응적 관계는 바슐라르가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듯이 은유적 관계를 보인다.

거주지를 감싸안아서, 가깝게 모인 사면 벽과 더불어 한 몸뚱이의

방이 되는 이 집이야말로 얼마나 훌륭한 존재의 응집의 이미지인가. 은신처가 수축된 것이다. 그래 한결 더 보호적으로 되어, 외부적으로 한결 더 강해진 것이다. 그것은 은신처였던 것이 보루로 된 것이다. 초가집이 그 안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배워야 하는 고독한 거주자에게는 용기로 무장한 성곽이 된 것이다. [……] 상상력에 의해 바로 태풍의 중심 자체가 된 집 안에서는, 단순히 모든 피난처에서 느껴지는 위안의 느낌을 넘어서야 한다. 투쟁하는 집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우주적인 드라마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¹³⁾

집과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겨울 추위에 대립하는 우주적 드라마는 이상의 시에서 한 가지 더 첨가된 형태로 변형된다. 즉 겨울 추위에 대항하는 직접적인 공간 구조는 집의 범주가 맞고 있고, 그 안에서 독서하는 화자의 정신적 행위는 또 하나의 은유적 범주를 만 들고 있다. '독서 행위'를 새로운 지식과 화자의 기존 의식과의 대립으로 볼 때, '사람/책의 대립 구조'가 나타난다. 이 대립 관계를 뒤집으면 '집∩사람' '극한∩독서'의 은유적 관계가 나타난다. 동시에 '추위/집'의 대립 구조는 '사람/책'의 대립 구조와 서로 유추적 대응 관계를 맺는다(대립 구조는 '/'로 표시한다). 시 「화로」의 전체 문장을 대립과 유추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집의 공간 구조는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로 나타난다. 부엌, 방저죽, 방 속, 방안의 공간 관계는 방안에 앉아 있는 화자에게 수평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의미 관계를 갖는다. 방바닥 위, 방바닥 밑, 구들장, 부엌 아궁이의 내부적으로 연결되는 관계는 수직적인 공간 구조를 이루면서 화자에게 어머니(조상)란 숨어 있는 무의식의 관계로 나타난다.

13) Gaston Bachelard(1990), p. 166.

I. 유리창∩눈

눈의 매개적 기능을 공간 관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대립을 이룬다.

방 밖(외)	/ 유리창	/ 방안(내)
추위 노출	/ 유리창	/ 추위로부터 보호된 공간
추위의 공격	/ 유리창	/ 방과 사람의 물리적 방어

유리창은 방 밖과 방안을 나누고 연결하는 기능을 하며 그것은 추위에 노출된 공간과 추위로부터 방어된 공간을 나누는 것이며 추위의 공격에 대한 물리적 방어선이 된다. 한편으로 유리창에 비유되는 신체의 지각 기관인 눈 역시 공간적으로 신체의 안과 밖을 연결하고 나누는 역할을 한다.

책 읽기	/ 눈(신체 기관)	/ 의식
낯선 지식	/ 눈	/ 기존 지식
새로운 지식	/ 지각 작용	/ 의식의 선별 기능
타자	/ 눈	/ 자아
외부	/ 눈	/ 내부
정신적인 공격	/ 눈	/ 사람의 의식적 방어

이와 같이 눈(지각 기관)의 책읽기 행위는 낯선 지식과 기존 지식의 대립이면서, 타자의 외부적인 새로운 지식을 자아의 내부적 선별 과정을 거쳐서 의식화하는 정신적인 대결과 수용의 장이 된다.

그런데 시 「화로」에서 눈의 기능은 독서 행위의 끝까지 병행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눈의 활동이 끝나면서 유리창의 추위에 대한 방어 기능도 약화되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문장 5), 문장 10)에서 보듯이 '눈을 뜨다/ 눈을 감다'의 행위향이 대립을 이루면서 독

서 행위와 독해 행위가 구별된다. 눈을 뜨고 책을 읽는 앞의 행위는 독서 행위이고, 눈을 감고 새로운 (의식의) 가지가 안에서 움직이는 과정은 외부의 지식이 내 의식 안에서 익는 독해 행위가 된다. 유리창의 경우에는 추위에 대항하는 x(유리창의 대응 존재)의 이차적인 방한 행위가 된다.

그러나 독서 행위와 독해 행위가 간단하게 갈라지고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의식의) '폭동'이라는 힘든 경계선을 넘어야 한다. 즉 의식만으로는 전인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도, 외부적 지식을 감당할 수도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폭동을 통하여 나의 무의식의 도움을 입어 의식의 가지가 돌아나는 일, 즉 지적인 확장이 이상이 생각하는 독해 행위이다. 공간적으로는 추위를 감당할 또 하나의 방어벽이 유리창을 가린다. 독서 행위에서는 눈이 아파서 눈을 팔로 가리는 행위로 나타난다. 독서는 문자를 읽는 과정에서 읽은 문자에 담긴 의미를 의식이 소화시키고 명상한다는 점에서, 일단계 독서와 다음 단계 독서가 표현되고 있다.

II. 화로∩의식의 해

화로를 짝 쥐거나 화로가 식한다는 행위는 화로에 어울리는 술이 되지만, 화로를 내 아픈 데에서 뺄다든가, 화로가 내 체온 위에 올라선다는 수수께끼적 표현은 이 문장들이 일상적 언술이 아니라 특수한 행위를 나타내는 비유적 언술임을 보여준다.

화로는 문장 5)에서 보듯이 반복적인 순환 구조를 통해 '화로∩집의 집중(중심)' 이고 의식의 핵심임이 나타난다. 추위의 공격이 심해지면서 문장 6)에서 화로는 찬 화로임이 드러난다. 즉 의식이 외부의 지식을 감당하지 못함을 비유한다. 그때 문장 8)에서는 어머니가 방바닥에서 초현실적으로 나타나 화로를 떼어가지고 부엌으로 나가신다. 어머니가 방바닥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의식의 출현임을 앞에서 말했지만 방바닥과 방고래와 부엌이 연결된 흔들방

구조¹⁴⁾를 상상할 때 화로는 부엌의 아궁이 불과 함의 관계를 맺는다. 또 어머니가 부엌에서 활동하신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머니와 부엌의 환유적인 상호 관계, 상응 관계가 나타난다.

화로	⊂ 부엌(아궁이)
의식의 불	⊂ 무의식의 불
나	⊂ 어머니(아니마像) ¹⁵⁾

여기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화로다. 화로는 방의 공간에 속한 것 이면서도 부엌의 공간에 속한다. 화로가 부엌의 큰 불에서 불덩이를 옮겨 들어와 방안에서는 난로 역할을 하므로 찬 화로와 따끈한 화로의 구분이 가능하다. 이 화로를 지키는 역할은 집안의 불씨를 담당하는 여성의 역할로 어머니상이다. 헌신적인 어머니상은 심리학에서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 요소이므로 화로를 지배하는 어머니는 의식의 활동을 지배하는 무의식의 기능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화로는 부분 난방 기구다. 방 전체를 덥히는 기능은 방바닥에 깔려 있는 방구들과 방고래를 통해 부엌에서 불을 지피는 온돌에서 하고 화로는 이동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쉽게 불이 식고 그러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화로가 뜨거워서 방안에 있는 사람을 덥히는 제 기능을 하는 상태는 +,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태는 -로 표시할 수 있다. 각 문장별로 그 대립을 살펴본다.

14) 온돌방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방바닥에서 어머니가 생기고'로 볼 때 방바닥을 난방으로 사용하는 방 구조는 곧 온돌일 것으로 추정된다.

15) 아니마 *anima*: C. G. Jung의 설에서 남성 속에 있는 여성적 요소.

화로 기능(따끈한 상태)	추위 세력(화로가 찬 상태)
5) + (화로 기능함)	-
6) -	+ (식은 화로)
7) -	+ (바다 조수 출현)
8) - (어머니 출현)	+ (화로 작용 불능)
9) - (의식의 가지 출현)	+ (의식의 폭동)
10) + (빨래방망이 등장)	-
11) + (어머니 재등장)	-
12) + (뜨거운 화로 등장)	- (기침)

추위의 세력이 문장 5)에서는 약했는데, 6)~9)까지는 추위가 강세를 띠고, 10)에서 다시 약해진다. 반대로 화로의 기능은 5)에서 기능을 발휘하다가 6)~9)에서 전혀 작동을 못 하다가 10)~12)에서 정상 복구된다. 여기서 (상징적) 어머니가 생겨 화로를 떼어가지고 부엌으로 나가는 행위는 곧 의식의 폭동을 암시한다. 의식에서 화로를 떼다는 행위가 의식 활동의 종단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의식은 상징적 어머니의 출현과 더불어 잠시 혼절한다. 화자의 의식은 사후에 폭동을 기억할 뿐이다. 여기서부터 독서 상태가 중단된다. 화자는 현 상태에서 화롯불을 켜고 책을 읽는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두 팔로 눈을 가리고 유리창에는 (커튼을) 치고 (의식의 중심인) 화로는 (상징적) 어머니가 부엌(무의식의 저장소)으로 가지고 나가신다. 그리고 새로 생긴 의식의 가지가 활동하기 시작한다. 곧 독해 과정이다.

여기서 유리창에 커튼을 친다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은 문장 “10) 두팔을벌리고유리窓을가로막으면빨래방망이가내등의더러운衣裳을뚜들긴다”에서다. 여기서 두 팔의 기능이 주목되는데, 두 팔로 가로막는 대상이 이 문장에서는 ‘유리창’이라고 바뀌어져 있다. 즉 두 팔로 가로막을 수 있는 신체의 대상은 다름아닌 앞에서도 나온 ‘두 눈’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A-x=C-D’ 즉 ‘두 팔-x=

눈-유리창'의 유추로 보면 두 팔로 눈을 가로막듯이 유리창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커튼'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생략 부분이 남유 *catacrisis*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¹⁶⁾ 그러나 전체 문맥상 두 팔로 눈을 가리고 독서를 중단한다는 의미가 시의 진행에 어울린다고 볼 때 생략 부분을 짚어낼 수 있다. 두 팔은 또 빨랫방망이를 가지고 내 등의 더러운 의상을 세탁하는 어머니의 상징적 역할로 이어진다.

다시 말하면 무의식의 상징적 어머니가 등장하여 두 가지 일을 한다. 찬 화롯불을 뜨거운 불로 바꾸는 일과 빨랫방망이로 화자 등의 더러운 의상을 세탁하는 일이다. 기존 의식을 (무의식의 존재인) 어머니가 세탁하는 의식의 전환 과정이 일어난다. 일상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부엌불을 관장하며 빨래하는 일이므로 의식의 현상태를 보강하는 작업은 두 가지가 병행된다. 화로 이미지에서는 부엌불이 등장하고, 유리창에는 커튼의 비유가 등장한다.

추위 쪽의 공격 이미지는 흑한의 배후 세력인 바다 조수가 밀려와 방안을 공격하면 화자는 감기가 들고 기침을 하게 된다. 추위가 심해지면 같은 난방을 해도 더 춥게 느껴진다. 즉 과도한 독서량을 의식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다. '기침약처럼 따끈따끈한 화로를'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화로=기침약'의 은유적 대응이 '같이'란 직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난다. 기침약이란 기침을 막는 약이다. 즉 흑한이 몸에 침입하면 감기가 들어 기침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기침은 (바다→바다 조수→흑한→기침)의 패러다임에 이어진다. 이와 반대되는 항은 추위를 막는 (부엌불→어머니 역할→화로→기침약)의 패러다임으로 형성된다. 이 두 패러다임은 열과 냉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대립은 기존의 대립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립항으로 나타난다. 기존의 대립은 책/눈/의식의 대립이고 추위/유리창/

16) Umberto Eco(1984), p. 149.

방의 대립이다. 그런데 화로가 제 기능을 발휘 못 하자 화로를 기존의 의식에서 떼어내어 무의식의 도움을 받게 한다. 즉 어머니가 나타나 화롯불을 부엌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다.

외부 공간	/ 변화된 내부 공간
새로운 지식	/ 의식의 가치
기침	/ 화로(기침약)
새로운 지식	/ 의식의 때(빨랫방망이 기능)
냉(외적 에너지)	/ 열(내적 에너지)
겨울바다 조수(냉기 생산지)	/ 부엌(불 생산지)
지식	/ 무의식+의식
독서 행위	/ 두뇌 활동

화로를 다시 방안으로 가져와 기침을 쫓듯이, 의식의 핵이 약해지자 무의식(어머니)이 나타나 더 큰 잠재 의식의 도움을 받아 의식의 핵을 보강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III. 방바닥∩어머니

추운 방에서 화로를 꺼안고 책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행위를 상상하라. 추위의 위력과 독서의 위력이 점점 강력해져 6) 바다 조수가 느껴진다. 그때 이런 외부의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방바닥이 열리고 거기서 어머니가 등장하는 초현실적인 세계가 열린다. 이와 같이 집∩독서의 공간 관계는 방바닥의 겉과 속, 의식과 무의식의 존재 출현이란 초현실적인 의식의 흐름으로 수직적으로 연결된다. 방바닥의 거죽에는 화자가 앉아 있지만 방바닥 밑의 공간(구들장)에는 나의 아니마상(像)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의식의 존재인 어머니가 숨어 있다가 등장한다. 어머니 이미지는 어떤 어머니이든간에 자식에게는 회생적이고 현신적이며 영원히 아름다운 구원자 *helper*의 역할을 한다.

화롯불이 방과 부엌으로 그리고 다시 방으로 어머니를 통해 이동하는 행위는 정신 작용으로 바꾸어보면 중층적 자아 세계를 암시한다. 독서 행위는 눈을 통해 읽을 수는 있으나 글 속의 정수를 이해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독해 행위에는 못 미치는 정신의 허약한 상태가 나타난다. 바로 ‘찬 화로’의 비유다. 불 꺼진 화로는 방의 공기를 썰렁하게 만들고, 독서 범주로 바꾸어보면 독해하는 정신 활동의 위기를 나타낸다. 그때 어머니가 나타난다. 내 자아 속의 어머니란 실제의 어머니가 아닌 상징적 어머니일 수밖에 없다.

방	∩ 話者
방바닥	∩ 어머니
방의 하부 구조	∩ 나의 先祖

심리학에서도 자아의 역할을 어머니의 역할로 비유한다. 즉 초자아와 자아의 양극단을 조정하고 연결하는 기능¹⁷⁾은 마치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이들 사이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어머니의 역할과 같다는 이론이다. 가족을 돌보는 어머니의 역할처럼, 상징적 존재의 도움으로 약화된 의식이 무의식의 강한 에너지를 보충한다.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나타난 어머니는 공간 범주로는 방바닥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무의식은 ‘샘물’ 같은 것이다. 거기에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향하

17) 이부영, 『분석심리학』(일조각, 1988), p. 48. “의식이 무의식에 비길 데 없이 적다고 해서 옳이 마치 의식의 기능을 무시하고 그를 비평하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자아를 ‘충동의 종속물’처럼 생각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자아가 없으면 인간 정신의 성숙도 불가능하고 옳의 개성화도 불가능하다. 정신분열증에서처럼 자아가 분열되면 모든 가치 감각이 사라지고 능동적인 재생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무의식은 자아의 무의식에 대한 태도 여하에 따라서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반응하게 된다. 자아가 무의식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의식화하고자 하면 할수록 무의식은 그의 창조적인 암시를 더욱 활발히 내보내게 된다.”

는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그것은 떼어버리거나 없애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며 창조적 가능성을 지닌 것이다. 그것은 방어해야 할 위험한 충동이기보다 체험하여 의식의 것으로 동화해야 할 것들이다. 이런 입장에서 무의식을 보면 무의식에 대한 자아의 태도는 달라진다. 즉 무의식이 지닌 지향적인 의미를 찾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존재하는 또 하나의 마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그 뜻을 찾아나가게 되는 것이다. 무의식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자율성이다. 우리가 잠 잘 때 계속해서 기능을 발휘하는 식물성 신경 기능처럼 무의식은 의식 작용에 구애받음이 없이 그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견해다. 그런 의미에서 무의식은 의식 작용보다도 더 항구적이며 때로는 그를 능가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자율성은 하나의 창조적 자율성이다. 무의식은 의식을 그 자율적인 힘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게 여러 가지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의식의 의식에 대한 관계는 대상적(代償的)이다. 대상 작용은 무의식의 중요한 기능이다. 다시 말해서 무의식은 의식에 결여된 것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그러므로써 그 개체의 정신적인 통합을 꾀한다"¹⁸⁾고 할 때 어머니의 상징적 기능을 알 수 있다.

3. 독서 행위와 독해 행위

책을 읽는 행위는 나의 자아와 책 속의 다른 자아가 대화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나의 자아가 눈을 통해 의식을 집중시켜 책을 읽으면 책의 의미 체계와 만나게 되는데 먼저 책 속의 자아가

18) 이부영, pp. 53~54.

말하는 의미 체계를 받아들이는 '독서 행위'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책 속의 타인의 지식을 자기에게 맞게 소화해내는 '독해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집과 사람은 내부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새 지식과 추위라는 외부적인 대상과 공간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독서하는 행위가 정신과 책 속의 지식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적대적인 사이로 비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독서의 비유체인 추위(혹한)는 방과 유리창과 화로로 비유되는 사람의 정신을 공격하고 먼 바다에서 일어나는 겨울 추위는 나를 수호하는 무의식의 어머니가 가져다주는 정신 심층에(부엌) 있는 화로에 의해 물리쳐진다. 즉 독서의 대상인 책은 어떤 과정을 거쳐 내게서 분리되어야 할 적대적인 속성이 된다. 그러나 독서가 단순히 적대적인 것만은 아니므로 독해 행위는 다시 한번 재고된다. 여기서 추위와 새로운 지식의 비유는 다음과 같이 확대될 수 있다. 그 관계는 환유적인 상호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추위 C 먼 바다: 물리적 기류의 이동

지식 C 지식인: 지식의 정신적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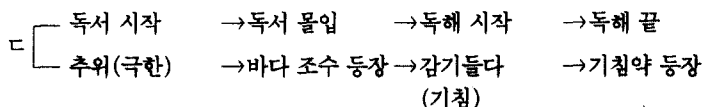
추위와 그 추위를 물고 오는 바다의 기류와 물결의 움직임이 하나의 범주를 이루고, 책 속의 지식은 지식의 바다에서 가져온 일부 지식이라는 또 다른 범주를 형성한다. 유사 관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극한	—— 책 속의 지식
(바다) 조수	—— 지식의 일부
먼 바다	—— 지식의 원천
기류의 이동	—— 지식의 이동

위의 대응 구조는 {극한C(바다) 조수C(먼 바다)} \cap {책 속의 지식 C지식의 일부C지식의 보고}의 합의 관계로 이루어진 비유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추위(극한)가 집을 뚫고 사람(화자)을 공격하는 우주적 드라마는 낯선 사람의 정신적 수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지적인 드라마로 연결됨을 볼 수 있다.

이런 일단계 대립 양상의 변화는 구원자의 등장으로 이루어진다. 외부 공격자인 겨울의 극한에 대항하여 무의식의 하위 이미지들이 대거 등장한다. 상징적 어머니의 등장, 커튼 등장, 빨랫방망이 등장, 부엌불 등장 등이 그것이다. 이들을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다. 기존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독서를 단순한 독서 행위라고 부른다면, 무의식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독서 행위를 독해 행위라고 부를 수 있다. 즉 단순한 지식의 수용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기존 지식, 기존 의식 수준과 결합하여 새로운 전인적 융합을 이루는 것을 독해 과정이라 부른다면 이상의 시 「화로」는 독서 과정-독해 과정이 잘 드러난 시라고 볼 수 있겠다. 그 과정을 1~4의 시간의 계기성으로 볼 수 있고, 1~2의 은유적 대응 상태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은유적으로 대응되는 행위들이 쌍을 이루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처음과 대립되는 상태로 끝나는 서사 구조를 띠고 있다.

	1	2	3	4
┌	눈뜨다(독서)	→의식의 폭동	→눈감다 (어머니 등장)	→의식의 가지 등장
└	유리창 방어	→옴폭 들어가다	→커튼 등장	→등의 의상 세탁
┌	화로	→찬 화로	→화로를 떼다	→따끈한 화로 (부엌불 보강)
└	의식 작용	→의식 미약 (수동적 독서)	→무의식의 협조	→의식과 무의식 융합



이상의 시 「화로」의 구조가 공간 은유적 대응 구조와 대립 구조로 잘 짜여진 공간적 답음의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 '겨울의 극한에 대항하는 집'의 대립 구조는 따끈한 화로가 등장하면서 극한의 패배로 끝난다. 그리고 독서와 새로운 지식의 팽팽한 대결은 책의 지식을 나의 의식이 소화시켜버렸으므로 독서는 끝이 나고 그 대립은 해체된다. 이와 같이 시 '화로'는 시가 갖는 순환 구조로서의 은유적 대응과 더불어 시작과 끝, 처음과 중간과 끝이라는 서사 구조도 갖고 있다. 이런 이상 시의 은유는 '단어 은유' 형태가 아닌 '언술 은유' 형태라고 부를 수 있다. 즉 단어와 단어의 대응과 교차라기보다 문장과 문장이 겹쳐지고 이어지면서 진행되는 술부 작용을 통한 언술 은유다.

시적 의미가 표현의 내포성 *connotation*에 상당 부분 힘입고 있음을 생각할 때 다소의 유추적 확대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다. 그것은 은유적 모호성 때문에 언제나 시 해석에서 부딪치게 되는 문제다. 커튼의 등장이라든가 빨랫방망이의 등장에 대한 해석이 그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은유란 기쁨의 수단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식의 도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듯이, 은유가 장식 이 아니라 명료함과 수수께끼의 원천이 되는 인지적 도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상의 시 「화로」를 통해 깨닫게 된다.

참고 문헌

- 김옥순(1989), 「은유구조론—이상(李箱)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김현 편(1985), 『수사학』, 문학과지성사.
- 이부영(1978), 『분석심리학』, 일조각, 1988.
- Aristotles, *Poetics*, 손명현 옮김, 박영사, 1986.
- Bachelard, Gaston, 『공간의 시학』, 박광수 옮김, 민음사, 1990.
- Delas, Daniel et Filliolet, Jacques(1973), 『언어학과 시학』, 인동, 1985.
- Dubois, J., Edelaïnd, F., Klinkenberg, J. M., etc.(1970), 『일반 수사학』, 용
경식 옮김, 한길사, 1989.
- Eco, Umberto(1984), *Semiotics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서우석 ·
전지호 옮김, 청하, 1987.
- Jakobson, Roman, 『문학 속의 언어학』, 신문수 편역, 문학과지성사,
1989.
- Ricoeur, Paul(1978), *The Rule of Metaphor*, London and Henley: Routled-
ge & Kegan Paul.
- Riffaterre, Michael(1978), 『시의 기호학』, 유재천 옮김, 민음사, 1989.
- Turbayne, Colin Murray(1962), *The Myth of Metaphor*,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